

소화전 주변·횡단보도 불법주차 ‘만연’

올해 불법주정차 신고 5699건… 횡단보도 주차 최대
“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 곤란… 불법주정차 삼가해야”

화재 발생 시 소방의 신속한 진압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도내 불법주정차 사례는 총 5699건이다. 이중 6대 불법주정차 구역 항목별로는 ▷횡단보도 1431건 ▷인도 1025건 ▷교차로 모퉁이 813건 ▷소화전 401건 ▷버스정류소 99건 ▷어린이보호구역 53건 등이 집계됐다.

실제 이날 오전 제주시 일대 불법주정차 상황을 살펴본 결과 도로변과 골목 등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라1동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과 인근 삼도2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들이 발견됐다. 이어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뒷골목에선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옆 인도 위에도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불법주정차 사

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위반 장소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하면 과태료 8만~9만원, 횡단보도 4만~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2만~1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구조를 막는 요소인 만큼 지난 2019년 과태료를 기존(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서 2배가량 인상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746건이다. 2022년 594건, 2023

년 985건, 2024년 116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이와 관련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9일 제주시 삼도2동의 한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양유리기자

특수교육 중학교 진학 설명회 부적절 발언 ‘파행’

학부모 단체 “차별·모욕적” 반발… 기자회견 예고
교육당국 “진심으로 사과… 16일 설명회 다시 개최”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진학설명회에서 한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는 학부모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교육당국이 사안 직후 신속히 혐의에 나서며 갈등은 조기에 수습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3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설명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당시 강연자로 나온 모 특수교육 관계자는 “아이가 체육시간에 옷 못갈아입으니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등의 요구를 하지 마라”, “우리애 좀 잘 봐주시지라고도 하지 마라”, “아이가 집에 왔는데 무릎에 멍이 들어있다고 학교에 묻지 마라, 교사도 모른다”는 발언을 해 학부모

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은 “설명회 어디에도 아이에 대한 인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학부모들에게 경고하는 말만 가득해 설명회가 끝난 후 울면서 귀가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배척하는 태도로 느껴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들을 혼내는 듯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지부는 설명회 직후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과 두 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하며 입장을 조율했고, 지부는 기자회견 취소를 알리며 갈등을 봉합했다. 지부는 “도교육청이 우리 지부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통합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약속했다”면서 “긍정적인 협의 결과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님들께 존중과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학부모님들과 정기적 협의체를 개최해 특수교육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음주 교통사고 40대 8일만에 또 ‘만취운전’

경찰, 구속·차량 압수 조치

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8일 만에 다시 만취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

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출석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8일 만인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제주시 일도1동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면허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양유리기자

파크골프장 4곳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서귀포시, 낮 12시~오후 3시… 8월 31일까지 적용

서귀포시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내 파크골프장 4곳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강창학, 남원, 칠십리, 월라봉 파크골프장이다.

무더위 휴식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휴식시간은 파크골프장의 주 이용자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

이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신 현재 오전 7시~오후 6시인 파크골프장 운영 시간을 오전 6시~오후 7시로 오전·오후에 각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교통질서 저해·서민경제 위협 강력 대처”

제주경찰, 홍보계도 후 9월 위반행위 등 집중단속

경찰이 오는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음주운전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폐해를 입히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밀집지역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주·야 불분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해 이달부터 도민 불만이 높고 도로 위 교통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 운전’을 7~8월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운행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상습 위반 장

소, 교통민원 발생 구간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시설개선도 연중 시행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인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압포매매’에 대해 향후 두달간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을 비롯해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무단부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삶을 좀 더 전향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한국병원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한라봉 2년 -카라 2년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눔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